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박양하 _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부

1. NKIS 시스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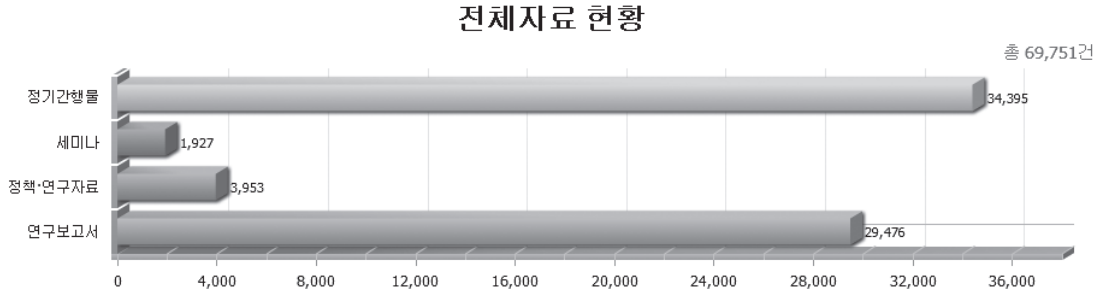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와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정보포털시스템이 바로 ‘국가정책연구포털(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이하 NKIS)’이다. NKIS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의 다각적 활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홍보·확산을 통해 정책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성과 활용도 및 국가정책 실행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NKIS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시스템으로 통합검색, 연구성과, 내 서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연구성과물에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NKIS는 초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의 주요 정책연구자료를 보존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정책연구자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보검색시스템 및 포털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 향후 NKIS는 ‘검색’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활용’ 시스템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에서 ‘길잡이’로 역할 수행을 가치로 두고 계속 발전해가는 정보시스템으로 변신해 가고 있다.

2014년 5월 서비스 시작으로 2017년 12월말까지 총 59,000여명의 회원이

NKIS를 통해 정책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69,700여건의 성과물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NKIS는 정책연구보고서 및 정책연구동향 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제별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가 정책을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책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근거 기반정책 연구 및 정책 기획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개발 과정 및 수록범위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운영되던 '출연(연)지식정보검색시스템(Institute Knowledge Inventory System: 이하 IKIS)'의 데이터를 이관받아 2014년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 NKIS로 개발·운영 중이다.

IKIS의 성격이 자료수집시스템(inventory system)의 성격이 강했다면, NKIS는 통합검색 기능 강화와 이용자의 다양한 접근점 제공을 통해 편리하게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시스템(information system)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NKIS는 정책연구보고서 검색뿐만 아니라 연구동향과 국책연구과제, 연구기관의 통계정보 링크, 연구기관의 채용공고와 세미나 개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포털시스템(portal service system)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1) 콘텐츠 수집 기관 및 범위

NKIS의 대표 콘텐츠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포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3개의 부설기관에서 생산하는 정책연구보고서이다.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기관 전문 연구진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연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표 1〉 NKIS의 연구보고서 수집 대상 기관

기관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

NKIS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각 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정책연구보고서에 접근하는 게이트웨이로서 연구성과물을 확산시키고, 소관 연구기관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주요 서비스

다양한 검색기법을 통해 개별 연구자료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RISS와 NAVER, KISS 등 외부 채널을 통해 NKIS로 유입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정부24를 통해서도 정책연구보고서를 더욱 손쉽게 정책연구성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문 검색을 기본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고유한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 연구기관별 디렉토리 검색, 자료유형별(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세미나자료, 정기간행물) 디렉토리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연구기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보고서와 정책기여 보고서를 전시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보고서와 세미나 영상을 서비스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구 콘텐츠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1> 우수보고서



<그림 2> 영상보고서

대표 콘텐츠와 함께 최신 정책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회를 포함한 27개 기관의 국책연구과제 공모 소식, 세미나 개최 안내 및 채용정보 소식을 수집, 빠르게 제공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17개 분야의 연구보고서를 선정하여 메일링으로 발송하고 있는 스마트 웹진(뉴스레터) 서비스는 이용자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된 분야의 보고서를 추천하는 개인화된 서비스이다.

3. 향후 계획

미국 스탠퍼드대 빈곤·불평등센터의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 국내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과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러스키 교수는 “정책이 정치보다 앞선다”고 강조하며, 정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근거들에 기반해 정책을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한 뒤 정치로 하여금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야한다는 ‘근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이라는 개념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였다(2017.11.16.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NKIS는 근거기반정책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정책연구보고서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 자료의 확산을 목표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수정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시스템을 통합하고 기능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 화면의 메뉴를 개편하고 검색 및 검색 결과 화면에 직관성을 높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2018년 4월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유사 보고서를 추천하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한 연구정책 시각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단순한 접근 시스템이 아닌 길잡이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2018년도에는 NKIS는 정책연구보고서와 같은 기본 콘텐츠의 내실화와 고도화 서비스를 기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적용 예정인 내용기반 큐레이션을 포함하여 이용자 활동 로그를 활용한 협업필터링 기반 큐레이션과 같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를 기획 중이다. 또한 출현 빈도에 의한 분석과 함께 연구기관, 표준분류체계, 주요어 등의 연관관계를 시각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간행물 형태의 연구보고서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특화 DB 서비스 및 콘텐츠를 알리고 NKIS의 링크를 통해 소관 연구기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기획 중이다.

향후 이용자를 통한 능동적인 정보 공유 생태계를 만들어 진정한 의미의 성과 확산 창구로 NKIS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이용자와 함께 소관 연구기관, 유관 서비

스 운영 기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체제를 더욱 보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NKIS의 연구 성과가 더욱 유의미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시스템 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